

## ‘다시 불 지핀’ 목포-신안 통합...7번째 도전 가능할까

김종식 시장·박우량 군수 공식 합의 ‘급물살’  
신안군민 ‘소외’ 불안감 해소·요구 수용 관건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다. 신안과 목포를 포함한 무안반도 통합논의는 지난 1994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무안을 제외한 목포시와 신안군의 선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시장과 박 군수는 최근 방송프로그램과 목포포럼 토론회 등에서 신안과 목포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양 단체장은 19일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출연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나누고 목포·신안 시·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통합은 신안군과 목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시대 소명”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해야 하고 도서지역민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과 목포는 동일 생활권인데 행정기관 이원화로 불편한 점이 많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식 시장은 “양 시군이 합치면 10년간 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양 단체장이 제시한 큰 틀의 로드맵을 보면 목포시는 2024년, 신안군은 2026년쯤을 통합시점으로 잡고 있다.

우선 주민설득과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전 흐름과 과외 조율에 나서고 통합

찬성 분위기가 형성되면 양 단체장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이때부터 법정절차에 들어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통합 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견 청취와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면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통합을 확정하며, 개청 세부 준비와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른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준비 등 과정을 감안하면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24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우량 군수는 “2022~2023년 사이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 시 출범을 알리고, 촉박하지 않게 2026년까지 준비를 마쳐 차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 단체장이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빠르면 오는 9월께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통합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시군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양 단체장이 정부에 공식 통합을 건의할 예정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의 명분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역사적 동질성과 사



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는 것과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의 시너지 효과다.

신안군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인구의 약 60%가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고, 2만 3000여 가구의 신안군 인구 약 40%가 목포에 집을 갖고 있다.

또 신안군 공무원 800여 명 중 90%가 목포가 생활권이며 신안에서 생산되는 연간 농수산물 소득 8000억 원의 소비처가 목포다.

시·군 통합에는 찬성하는 목포보다는 신안군의 입장이 중요하다. 합치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여론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도서민

들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준비단, 시민단체와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신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배분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목포시의 양보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 군수는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신안 주민들의 의견은 5대 5라고 본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 1인당 예산이 신안 1인당 예산의 4배 이상이며, 천사대교 등 연도교 개통으로 삶의 질이 향상돼 통합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낙후되고 정체된 전남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므로 목포시가 신안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이 포함된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 이후 6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김정환·목포=박정수 기자

### “송파 60번 거짓진술에”...광주 코로나 확산 ‘예측 불허’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으로 광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6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송파 60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친인척 등 모두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한 5%

명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58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출과 외부 접촉이 일절 금지되는 자가격리자도 128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전날 확진자 2명(남매)이 발생한 광주 계수초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직원 44명, 기타 6명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5명

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니던 희망직업학교에서도 51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더블유에셋도 직원 등 19명도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타났다.

확진 초등학생이 다닌 학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 사람(송파 60번)의

코로나19 검사 600여명·자가격리 128명 달해  
이용섭 시장 “골든타임 놓쳐...수많은 시민 고통”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60번의 거짓 진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 검사자와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광주시는 ‘가짜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광주경찰청에 고발조치했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코로나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